2027학년도 경희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인문·체육계)

[세트 1]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 ) 성 명 ( )

【 수험생 유의사항 】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일반적 유의사항
1. 문제지는 총 4 쪽(표지 제외)입니다. 2. 답안지 상단에 지원학부(과), 수험번호, 성명을 적습니다. 3.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논제번호(Ⅰ, Ⅱ)에 맞춰 답안을 작성합니다. 4.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논제별 분량 제한을 지킵니다. 논제 Ⅰ: 801자 이상~900자 이하 논제 Ⅱ: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씁니다. 6. 답안을 고칠 때에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릅니다. 7.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예: 감사합니다)은 쓰지 않습니다.	1. 시험 시간은 120분(논제 Ⅰ·Ⅱ 합)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배점은 논제 Ⅰ 40점, 논제 Ⅱ 60점입니다. 3. 답안지는 함께 받은 원고지(A3 앞면 논제 Ⅰ, 뒷면 논제 Ⅱ)를 씁니다. 4. 이 문제지는 경희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인문·체육계)의 출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경희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닙니다. 5.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두 논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좋은 시는 모두 강렬한 감정이 저절로 흘러넘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참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시는 어떤 주제를 다루든 남달리 섬세한 감수성을 타고났으면서 오래 깊이 생각해 온 사람에게서만 나왔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 의해 다듬어지고 방향을 얻는데, 그 생각이란 실은 지나간 모든 감정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대표들 사이의 관계를 곰곰이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러한 일을 거듭하는 동안 중요한 주제와 이어진 감정은 자라난다.

(중략)

앞에서 나는 시가 강렬한 감정이 저절로 흘러넘친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는 고요함 속에서 되살려 낸 정서에서 비롯된다. 시인은 그 정서를 오래 응시하고, 그러는 사이 일종의 반작용으로 고요함은 차츰 사라지며, 처음 응시하던 것과 비슷한 정서가 차츰 생겨나 실제로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대개 이러한 상태에서 성공적인 창작이 시작되고, 이와 비슷한 상태에서 창작이 이어진다. 그러나 그 정서는 어떤 종류이든, 어떤 정도이든, 여러 까닭으로 갖가지 즐거움과 어우러져 누그러진다. 그리하여 시인이 어떤 격정을 그려 내든, 스스로 그려 내기로 한 것이라면 그의 마음은 대체로 즐거움의 상태에 있게 된다.

[나]

이러한 비평은 예술 작품을 그저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으로 다룬다. 그것은 예술가의 실제 의도를 찾아내어 그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점에서 그 비평은 옳다. 아름답게 창조된 것의 의미는, 적어도 그것을 빚어낸 이의 영혼 속에 있었던 만큼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영혼 속에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아름다운 것에 수많은 의미를 빌려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이로운 것으로 만들며, 그것을 시대와 새로운 관계 속에 놓아 우리 삶의 살아 있는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은 바라보는 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기도하며 바라 놓고도 정작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눈에 보이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음악의 아름다움처럼 무엇보다 먼저 인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며, 예술가의 지나친 지적 의도 때문에 손상될 수 있고 실제로도 자주 손상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작품은 일단 완성되면 이를테면 그 나름의 독립된 생명을 지니게 되어, 그 입에 담으라고 넣어 준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따금 「탄호이저」 서곡을 들을 때면 나는 그 늠름한 기사가 꽃이 흩뿌려진 풀밭을 사뿐히 밟고 가는 모습을 보고, 동굴 깊은 언덕에서 그를 부르는 비너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 그 음악은 나에게 수천 가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어쩌면 나 자신과 나의 삶에 대해, 혹은 한때 사랑했다가 사랑하기에 지쳐 버린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혹은 사람이 알아 온 열정이나 알지 못했기에 찾아 헤맨 열정에 대해. 오늘 밤 그 음악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내일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말한 그리스의 음악처럼 의사의 구실을 하여 고통을 달래 주고 상처 입은 영혼을 낫게 할 수도 있다.

음악에 대해 참인 것은 모든 예술에 대해서도 참이다. 아름다움은 사람의 기분만큼이나 많은 의미를 지닌다. 아름다움은 상징들의 상징이다.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드러낸다.

[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없이
꽃이 지네

[라]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칵칵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겨우 황원(荒原)처럼 거칠고 구지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벌판에 벼락이 떨어져도, 그것은 뇌성(雷聲) 끝에 가끔 있는 다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촌동(村童)이 범에게 물려가도, 그것은 맹수가 사는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神罰)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전선주 하나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흥분할 수 있으랴.

팔봉산 등을 넘어 철골 전선주가 늘어섰다. 그러나, 그 동선은 이 촌락에 엽서 한 장을 내려뜨리지 않고 섰는 채다.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방이 아직도 송명(松明)으로 어둠침침한 이상, 그 전선주들은 이 마을 동구에 늘어선 포플라나무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던가 가을에 곡식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희망은 아니다. 본능이다.

내일. 내일도 오늘 하던 계속의 일을 해야지. 이 끝없는 권태의 내일은 왜 이렇게 끝없이 있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른다. 간혹, 그런 의혹이 전광과 같이 그들의 흉리(胸裏)를 스치는 일이 있어도, 다음 순간 하루의 노역(奴役)으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만다. 그러니, 농민은 참 불행하도다. 그럼 이 흉악한 권태를 자각할 줄 아는 나는 얼마나 행복된가.

댑싸리나무도 축 늘어졌다. 물은 흐르면서 가끔 웅덩이를 만나면 썩는다.

내가 앉아 있는 데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 내 앞에서 물은 조용히 썩는다.

낮닭 우는 소리가 무던히 한가롭다. 어제도 울던 낮닭이 오늘도 또 울었다는 외에 아무흥미도 없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다만, 우연히 귀에 들어왔으니까 그저 들었을 분이다.

닭은 그래도 새벽, 낮으로 울기나 한다. 그러나 이 동리의 개들은 짖지를 않는다. 그러면, 모두 벙어리 개들인가, 아니다. 그 증거로는 이 동리 사람 아닌 내가 돌팔매질을 하면서 위협하면 십 리나 달아나면서 나를 돌아다보고 짖는다.

(중략)

그러니, 실로 개들이 무엇을 보고 짖으랴. 개들은 너무나 오랜동안—아마 그 출생 당시부터—짖는 버릇을 포기한 채 지내왔다. 몇 대를 두고 짖지 않은 이곳 견족들은 드디어 짖는다는 본능을 상실하고 만 것이리라. 인제는 돌이나 나무토막으로 얻어맞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파야 겨우 짖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본능은 인간에게도 있느니, 특히 개의 특징으로 쳐들 것은 못 되리라.

개들은 대개 제가 길리우고 있는 집 문간에 가 앉아서 밤이면 밤잠, 낮이면 낮잠을 잔다. 왜? 그들은 수비할 아무 대상도 없으니까다.

(중략)

길을 걸어본댔자 소득이 없다. 낮잠이나 자자. 그리하여, 개들은 천부의 수위술을 망각하고 낮잠에 탐닉하여 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말았다.

[마]

바시키르 사람들의 촌장은 여우 털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하였다. "이것이 표지요. 여기서 떠나 여기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걸어서 둘러 온 땅은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면 낸 돈은 잃게 되오."

해가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바흠은 삽을 메고 초원으로 내려갔다. 한참을 걸은 뒤 그는 생각하였다. "삼 마일만 더 가서 왼쪽으로 돌아야지. 이렇게 좋은 땅을 놓치면 아깝지. 멀리 갈수록 땅이 더 좋아 보이는군." 그가 다시 돌아보았을 때 언덕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 위의 사람들은 검은 개미처럼 보였다.

(중략)

그는 다시 왼쪽으로 돌려다가 축축한 우묵한 땅을 보았다. "저걸 빼놓으면 아깝지. 아마(亞麻)가 저기서 잘 자랄 거야." 그래서 그는 우묵한 땅을 지나 그 건너편에 구덩이를 판 뒤에야 모퉁이를 돌았다.

(중략)

바흠은 언덕을 향해 곧장 걸었지만, 이제는 걷기가 힘들었다. 더위에 지쳤고 맨발은 베이고 멍들었으며 다리는 풀리기 시작하였다. 해는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았고, 점점 더 낮게 가라앉았다. "아아, 너무 많이 가지려다 일을 그르친 게 아니라면 좋으련만. 늦으면 어쩌지?"

그는 달리기 시작하였다. 웃옷도, 장화도, 물병도, 모자도 내던지고 몸을 버틸 삽 하나만 남겼다. "어쩌면 좋지. 너무 많이 움켜쥐다가 다 망쳐 버렸어." 죽을까 겁이 났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와 놓고 이제 와서 멈추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겠지." 해는 지평선 가까이에서 안개에 싸인 채 크고 핏빛처럼 붉었다. "땅은 넉넉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가 거기서 살게 해 주실까? 나는 목숨을 잃었어. 저기까지 닿지 못할 거야!"

(중략)

그는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 모자를 보았다. 그 앞에 촌장이 앉아 옆구리를 붙잡고 웃고 있었다. 다리가 꺾이며 그는 앞으로 쓰러졌고, 두 손이 모자에 닿았다. "아, 장한 사람이오! 땅을 많이 얻었구려!" 촌장이 외쳤다. 바흠의 일꾼이 달려와 그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바흠은 죽어 있었다.

(중략)

일꾼은 삽을 집어 들어 바흠이 누울 만큼의 무덤을 파고 그를 묻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섯 자,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땅의 전부였다.

[바]

노자는 "가장 잘 다스려진 세상에서는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되, 백성은 저마다 제 음식을 달게 여기고 제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제 풍속을 편안히 여기고 제 일을 즐거워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오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반드시 이것을 힘써 이루겠다며 요즘 세상에 백성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거의 행해질 수 없을 것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신농 이전의 일은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시경』과 『서경』에 적힌 우나라와 하나라 이래로, 사람들은 귀와 눈으로는 좋은 소리와 빛깔을 끝까지 누리려 하고, 입으로는 온갖 고기 맛을 다 보려 하며, 몸은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고, 마음은 권세와 재능의 영예를 뽐내려 하였다. 이러한 풍속이 백성에게 스며든 지 오래되었으니, 집집마다 찾아가 정묘한 이론으로 타이른다 해도 끝내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다스림은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은 이익으로 이끄는 것이며, 그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고, 그다음은 법으로 가지런히 하는 것이며, 가장 못한 다스림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라고 하였다. 예는 가진 데서 생기고 가진 것이 없는 데서 사라진다. 그래서 군자가 부유하면 즐겨 덕을 베풀고, 소인이 부유하면 제 힘에 맞게 산다. 못이 깊어야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모여들듯, 사람이 부유해야 인의가 따른다.

(중략)

천하 사람들이 즐겁게 몰려오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에 오는 것이요, 어지러이 흩어져 가는 것도 모두 이익 때문에 가는 것이다.

(중략)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재산을 늘려 살아갈 수 있다면 어진 사람도 그 일에 힘쓴다. (중략) 깊은 산속에 숨어 사는 뛰어난 선비 같은 행실도 없으면서 오래도록 가난하고 천하게 지내며 인의를 말하기만 좋아하는 것은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사]

원헌은 노나라에 살았다. 사방이 담 한 칸 길이밖에 안 되는 좁은 집은 생풀로 지붕을 이었고, 쑥대로 엮은 문은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뽕나무 가지로 문지도리를 삼았다. 깨진 항아리 주둥이로 창을 낸 두 칸 방은 거친 베로 막았는데, 위에서는 비가 새고 아래는 축축하였다. 그래도 그는 바르게 앉아 거문고를 탔다. 자공이 큰 말을 타고, 안은 감색이요 겉은 흰 옷을 입고, 골목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큰 수레를 몰고 원헌을 찾아왔다. 원헌은 나무껍질로 만든 관을 쓰고 뒤축이 없는 신을 신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나와 문을 열었다. 자공이 말하였다. "아! 선생께서는 무슨 병이 드셨습니까?" 원헌이 대답하였다. "내가 듣기로,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배우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병이라 한다 하였소. 지금 나는 가난한 것이지 병든 것이 아니오." 자공은 머뭇거리며 부끄러운 기색을 띠었다. 원헌이 웃으며 말하였다. "세상의 평판을 바라고 행동하며, 패거리를 지어 벗을 사귀고, 남에게 보이려고 배우고 제 이익을 위해 가르치며, 인의를 내세워 나쁜 짓을 감추고 수레와 말로 겉을 꾸미는 일은 나는 차마 하지 못하겠소."

(중략)

공자가 안회에게 말하였다. "회야, 이리 오너라. 너는 집이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데 어찌 벼슬하지 않느냐?" 안회가 대답하였다. "벼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성 밖에 밭 쉰 이랑이 있어 죽을 끓여 먹기에 넉넉하고, 성 안에 밭 열 이랑이 있어 실과 삼을 얻기에 넉넉합니다. 거문고를 타면 스스로 즐기기에 넉넉하고, 선생님께 배운 도는 스스로 즐거워하기에 넉넉합니다. 저는 벼슬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자가 얼굴빛을 바꾸며 말하였다. "훌륭하구나, 회의 뜻이! 내가 듣기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익 때문에 자신을 얽매지 않고, 스스로 얻은 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안으로 수양한 사람은 지위가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외운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회에게서 그것을 보는구나. 이것이 나의 얻음이다."

[논제 I] [가]와 [나]의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관점에서 [다]를 해석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논제 II]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끝〉